

오수개 정통성 확보 주력

혈통 고정화 연구세미나 열려
유전자 분석결과 토종견과
조상 동일... 연구 지원 절실

오수개 보존회(회장 심재석)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 오수개 혈통고정화 연구 세미나에서 지난 1996년부터 오수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수개 유전공학 육종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재는 오수개가 유전학적으로 독립적 형질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동물자원학부)의 "오수개 유전자 분석과 체계적 관리 방안 구축" 발표에 따르면 오수개 DNA 정보추출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국내토종견과 유전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오수개는 북방견으로써 한국의 토종견들과 조상이 같으며 정서적으로도 오수개는 한국 국견의 지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격려사에서 "임실군의 향후 발전방향의 큰 축으로 오수개 애견관광지 개발과 한국에서 오수지역이 애견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하는데, 임실군에서도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오수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오수개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수개 보존회가 주관으로 2017년 오수개 혈통고정화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 '오수개의 유전자 분석과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 서리법대학 이동훈 교수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의 어제와 오늘', 사)한국애견협회 최강일 이사 '개의 육종(Breeding)과 개량(Improvement of Breed)', 오수개보존회 이정현 연구팀장 '오수개 혈통고정화 연구 현황'을 발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오수개가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필요한 라인별 교배 시스템 확보와 이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강조되었

다. 또한 유전적 형질 고정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수개 고유의 유전적 형질의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연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축된 오수개 관련 시설로서는 오수개 연구소가 새롭게 건립되었고 오수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오수개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됨으로서 의견의 고장 오수 지역이 세계적인 반려견의 메카로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동동·동화축제 22일 팡파르

남원예촌 일원서 3일간
잃어버린 동심 찾기

겨울철 아이들의 동심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리는 '동동·동화(冬童·童話) 축제'가 오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원예촌 일원에서 3일간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겨울(冬), 아이(童), 이야기(童話) 3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인형극,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 및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겨울(冬)' 테마에서는 겨울철 별미인 고구마·밤 등을 모닥불에 직접 구워 먹으며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이(童)' 테마에서는 전통 겨울놀

이 체험으로 연날리기, 팽이치기, 널뛰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하며 가족동반 관광객들이 모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이야기(童話)' 테마에서는 남원예촌 한국 온돌방의 따뜻함과 할머니의 포근함 속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구연동화) 및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현재 사전예약(☎063-620-6170) 접수 중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남원의 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기념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편, 이번 축제는 2017년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되며, 남원시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동동화축제추진단이 주관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선정 포상

임실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군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동기유발과 내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장려 총 5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과제의 발굴, 지역투자기반 조성 및 행태개선 등 규제개혁 해소에 기여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1월 공직조서 제출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상에 지역경제과 김명수, 장려상은 건설과 이도수, 주민복지과 이정일, 상하수도사업소 김중훈, 지사면 송사영 주무관이 선정돼 포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장류산업 판도 꿈틀

순창군이 전문학적 규모의 미생물산업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하면서 순창의 장류산업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군은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과 장내유용미생물은행(대변은행)건립사업 국가예산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은 전통발효미생물을 연구·생산하고 전통발효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3년간 80억원을 투자하며 5억원을 확보해 2018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사업은 토종 발효미생물을 식품관련 기업에 제공해 전통발효식품산업으로 일대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장내유용미생물은행(대변은행)은 제대혈과 같이 가족단위의 태변과 10대, 20대, 30대의 건강한 대변을 보관했다가 40대 이후 장내미생물 균종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은 2018년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장내유용미생물 산업육성사업 2018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포함한 대변 보관은행, 장내미생물 평가 기술기반 구축 R&D 사업, 미생물 실험생산 C-GMP 미생물공장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대 100만건 이상의 대변을 보관해 국민건강 관련 의료보험 비용을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4년연속 1000억원 예산시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목적호수변도로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박차

올해 4000억 예산시대를 이끈 임실군이 2018년도 역대 최대 수준의 국가예산 확보를 확보하면서 넘겨받은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은 966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의 예산을 따내면서 새 임실 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 해 예산이 마무리되는 결산 시점에 통상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1,000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이후 임실군의 국가예산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800억원대에 머물렀던 국가예산은 민선 6기 출범 직후인 2015

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4년 연속 1,000억원대 예산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견인한 중점사업은 목적호수변 도로 개설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을 비롯, 임실치스타 마파크 정비사업 조성 7억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5억5000만원, 다목적 체육관건립 5억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억원 등 16개에 달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들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2,225억원으로 이중 내년 예산으로 6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국가예산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모두 51건으로 총 사업비 5,177억원 중 302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중앙공포사업에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작업단과 임실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 임실현경관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사업 등 32개사업 144억원의 국비를 확보

했다. 이같은 성과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연초부터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밀착형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예산편성 막바지 단계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집요한 노력이 주요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올 한 해 최종예산은 4,025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4,000억원 이상의 재정규모를 달성했고, 국가예산도 1,000억원 수준을 확보해 더 나은 살림살이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굳건현안의 일선위로 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37개사업 4,360억원 규모를 발굴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연초부터 중앙부처 대응활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망치된 '홍물' 빈집... '보물'로 재탄생

순창군, 29일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함께 매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고정금리 연리 2%, 대출금리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이며,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45평)이하가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홍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철거를 통한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반지붕 1백만원, 슬레이트 지붕 2백 5십만원 보조 지원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로 주택 철거 최소 면적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30㎡ 이상이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